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8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안민석 의원 인터뷰

“차기 체육회장의 조건X2032남북올림픽X체육부 신설”

- ▶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 2045년 남북통일의 비전
- ▶ KOC 분리 거부는 플라자 합의 어긋 ‘먹튀’
- ▶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스포츠 혁신에 대한 평가
- ▶ 차기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 혁신 주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 ▶ 체육청? 그 이상의 ‘체육부’가 필요하다

강신욱 교수,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 선언

“지도자와 선수들이 흘린 땀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메달 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과정이 잘못된 것”

“젊은 지도자 처우 개선해야 엘리트 스포츠 발전할 수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인터뷰

“반복해서 발생하는 체육계 병폐 원인은 학교 체육이 무너진 것에서 비롯”

“체육인의 취업 길 좁아 패거리가 생기고 비리의 사각지대 발생”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관련... “허점 많지만 체육회에서 정리 작업 중”

“2024년 강원유스올림픽 징검다리 삼아 2032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노력”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스포츠가 평화와 통일의 변화를 이끌 것”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선수·지도자·행정가’ 강신욱 교수 “올림픽 메달은 누군가의 꿈이다”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하루하루 죽을힘을 다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에요.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를 바로잡고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1월 5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강신욱(65) 교수의 얘기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 열린다. 강 교수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는 3명으로 늘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한배구협회 장영달 전 회장도 선거 출마를 알린 바 있다.

- ‘선수·지도자·행정가’ 거친 강신욱 교수 “올림픽 메달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은 다르다” -

강신욱 교수는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스포츠 인권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엘리트 체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교수는 “엘리트 체육을 바로잡고 싶은 꿈이 있다”며 “지도자와 선수들이 흘린 땀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시대가 변했다. 한국은 이제 올림픽 메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엘리트 스포츠의 본질은 메달이다. 그동안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운동부내 폭언, 폭행 등은 메달 획득을 위한 과정으로 봤다. 그 과정이 잘못된 거다. 과정을 바로잡고 선수들이 꿈을 펼칠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대한체육회의 역할이다.” 강 교수의 말이다.

강 교수는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꼽았다. 강 교수는 “선수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선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젊은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엘리트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지도자가 많다. 여기에 지도자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다. 스포츠 토토기금과 국민건강진흥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특히나 체육계가 놓치고 있는 재원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뱃세를 걷는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애쓰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일정 비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한체육회를 만들겠다.” 강 교수의 말이다.

강 교수는 평생을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강 교수는 대학 시절 하키 선수로 활동했다. 강 교수는 전농여중, 용산고 교사 시절엔 하키부 감독을 맡았다. 1989년 단국대 교수로 재직한 강 교수는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2005~2013), 대한체육회 혁신위원회 위원(2005~2007), 한국생활체육국제교류협회 회장(2007~2008),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정책포럼 공동대표(2009~2011), 한국체육학회 회장(2016, 2017), 대한체육회 이사(2017.01~05) 등을 역임하면서 체육계 발전이 크게 이바지했다.

thissports@mbcplus.com



안민석 의원

“차기 체육회장의 조건X2032남북올림픽X체육부 신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나요? 하하.”

KOC 분리 논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방한 불발, 내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등을 둘러싸고 갖은 설들이 난무하는 체육계, 카더라의 끝엔 어김없이 '안민석'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따라나온다.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와 KOC 분리 뒤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특정인을 밀고 있다"는 식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20호에서 마주한 안 의원에겐 팩트체크를 하자마자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었나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평생 체육개혁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1970~1980년대 성적지상주의 논리로 스포츠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사람, 기득권에 공생하는 언론인, 학자, 체육인 등등 혁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퍼뜨린다. 10년 전 학교체육진흥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스포츠 혁신을 반대하고 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인 안민석을 공격해 혁신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2032년 서울-평양공동올림픽, 2045년 남북통일의 비전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82학번, 중앙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스포츠 사회학자 출신 안 의원은 지역구 경기도 오산시에서 5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이끌었고, 20대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일했으며, 21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데 왜 외통위로 가셨느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때문"이라고 즉답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아이디어는 내가 낸 것이다. 남북공동올림픽의 전제는 비핵화다.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면, 유치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단언했다. 첫째,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한 내용이다. 둘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의지를 갖고 보름 전쯤 바흐 위원장과도 만났다. 삼성은 2028년까지 IOC에 1조 5000억원을 후원하는 톱 스폰서다. 셋째, 분단국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은 올림픽정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바흐 위원장도 남북공동올림픽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림픽을 열게 되면 바흐 위원장이 평화특사 자격으로 남북을 오가며 노벨평화상 후보 반열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의원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통일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남북이 공동유치 활동을 시작하면, 2022~2023년 유치 결정이 날 수 있다. 내년 외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서울-평양공동올림픽 축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다. 2032년 올림픽을 통해 남북의 정신적, 문화적 통일이 이뤄지고 해방 100년 되는 2045년 정치적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과 이 로드맵을 공유했다."

▶ KOC 분리 거부는 플라자 합의 어긋 '먹튀'

최근 체육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KOC 분리 이야기가 나오자 안 의원은 테이블 한켠에서 2014년 11월 6일 '플라자호텔 합의문'을 꺼내보였다. 당시 김 종 문체부 차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안 의원이 양 체육회 통합에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이다. KOC 분리 여부는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불씨를 남겼다. 19, 20대를 지나 21대 국회까지 첨예한 쟁점이다. '그때 왜 KOC 분리까지 한꺼번에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당시에도 정부는 KOC 분리를 원했는데, 대한체육회의 반발이 심했다. 통합 자체가 합의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양보와 타협, 순차적 통합을 모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KOC를 분리하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KOC 분리를 못하겠다는 것은 생활체육회만 삼키고 '먹튀'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스포츠맨십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분리가 절대적인 선이라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분리를 결사항쟁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약속을 깨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OC가 분리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예산, 인력이 수반되는 '업무 분장'이다. 즉, 올림픽에 나설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대한체육회와 KOC 중 어디서 담당하느냐의 문제다. 안 의원은 "KOC는 스포츠 외교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스포츠 외교 전문가가 있는가. 전문가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만 해도 40명의 스포츠 외교 전문가들이 있다. 대한체육회 국제체육과는 순환보직이다. 구조적으로 전문가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트 양성은 대한체육회가 하고, KOC는 대한체육회가 양성한 선수를 KOC는 파견하는 것이다. 국제적 업무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두 달 전 '정부의 방침은 KOC 분리니 분리 후 이 회장이 KOC위원장을 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은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회장이 거부했다. 그 후 IOC에서 KOC 분리를 우려하는 레터가 왔다. IOC 공문 기획에 대해 청와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필요할 때는 정부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NOC이고 예산 받을 때는 대한체육회다. 4000억원 정부 예산을 받는 한 관리감독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장 계속

▶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스포츠 혁신에 대한 평가

안 의원은 "빙상계 성폭력 의혹 사건, 고 최숙현 사건 등은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라고 돌아봤다. "20세기는 인권보다 메달이 우선적인 가치였지만 21세기는 메달보다 인권이 소중한 가치다. 대통령께서도 메달보다 인권이 우선인 시대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 이것이 스포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가 내놓은 8차례 권고안은 이 시대정신을 담아낸 스포츠 혁신의 바이블이다. 스포츠 인권과 학습권이 핵심가치"라면서 "이 혁신안에 반대하는 것은 메달을 위해 반인권과 폭력을 용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인사설로 논란이 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영입 과정도 소상히 설명했다. "조국 찬스로 낙하산 임명됐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동료 언론인이 추천을 했고, 본인은 고사했는데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삼고초려 끝에 모신 인권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제 선수들 스스로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대학도 가고, 미국 일본처럼 의사, 변호사가 나올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당장은 힘들어도 일단 시작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2010년부터 추구해온 '공부하는 선수' 정책과 학습권이 현장에 정착되는 데는 역설적이게도 정유라가 큰 기여를 했다. 중고, 대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정유라가 개혁을 10년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 차기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 혁신 주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내년 1월 1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기흥 회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강신욱 단국대 교수, 장영달 전 의원,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유준상, 이동섭, 문대성 전 의원 등의 출마설이 무성하다. 이중 한 후보는 안 의원이 미는 후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안 의원은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스포츠 혁신의 뜻을 함께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지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선거는 혁신과 반혁신의 총성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안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차기 대한체육회장의 조건을 언급했다. "첫째, 스포츠 혁신을 통해 스포츠 선진국을 이룰 분, 둘째, 정부와 잘 협력하고 소통해 체육발전을 이룰 분이어야 한다. 체육회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고 정부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연예산 4000억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 운영하는 정부산하 단체다. 지금처럼 체육회가 정부와 갈등 관계인 적은 유사 이래 처음이다. 대한체육회가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국가기강의 문제다. 지금같은 혼란과 무질서를 원하는 체육인들은 없다. 정부와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통합체육회의 취지를 잘 이해해 학교-생활-엘리트 체육 상생발전을 이룰 분이어야 한다. 든든한 풀뿌리 체육의 토대 위에 엘리트 체육을 꽃피워야 한다. 넷째,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실천할 분이어야 한다. 내가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대표발의한 '지방체육법인화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면 지방체육의 재정적 안정이 가능해질 것이고, 체육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체육청? 그 이상의 체육부가 필요하다

학교체육에 각별한 애정을 지닌 안 의원은 코로나시대 교육부, 문체부 등 정부에 체육전문가가 부족하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체육 전문 거버넌스인 '체육청'의 필요성을 묻자 안 의원은 "체육청으로는 안된다. 국민건강시대와 남북공동올림픽을 위해 그보다 격상된 '체육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하여 관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988 서울올림픽을 위해 체육부를 만든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체육청으로는 시대적 요구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체육부는 교육부의 학교체육 업무를 포함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전반을 체육부가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학교체육을 교육부가, 생활-엘리트체육은 문체부가 하는 단절된 행정체계는 비효율적이다. 체육부를 통해 체육인재들을 적극 등용하고 활용하는 한편 지도자들의 신분 안정 문제도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인터뷰의 끝,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체육단체를 체육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각 종목 회장을 체육인들이 맡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협회장으로 활동했던 주원홍 감독(테니스), 방열 감독(농구), 유승민 IOC위원(탁구) 등이 좋은 모델이다. 체육인 중에서 책임자가 나오도록 체육인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부족하더라도 체육단체는 체육인들이 맡아야 하고 기업인, 정치인들은 도와주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체육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계의 파사현정(사악함을 깨고 바른 도리를 드러냄)을 기대한다."



“모든 학생 즐기게 학교체육 정상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목표”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스포츠를 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5)에게 새로운 100년을 향해 한국 스포츠가 가야 할 방향을 묻자 위와 같은 짧고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1920년 출범한 대한체육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3일 오후 2시 반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10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4년간 통합 대한체육회를 이끈 이 회장은 체육 현장의 목표 설정부터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체육이 등한시되는 구조적 문제가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한국 스포츠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것. 이 회장은 “어려서 운동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을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온갖 체육계 병폐의 원인도 결국 학교 체육이 무너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운동선수는 공부해야 한다’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역발상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은 운동을 하면서 인성과 소양을 쌓고, 공정의 룰을 배운다. 그 과정에서 소질이 뛰어난 전문 선수도 나오고, 체육 관련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에 체육 전공자들이 2만 명가량 사회로 배출되는데 자리가 없으니 패거리가 생기고 싸우다 비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자리가 충분히 보장되면 사고를 칠 이유도 없다”며 “학교 체육이 담장을 넘어 인권과 공정성이 보장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이어져 국민으로 퍼지는 것, 이게 바로 체육 선진화다”고 강조했다.

7월 철인3종 고최숙현 선수의 폭력, 인권 침해 사태 이후 체육계를 향한 변화와 혁신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지도자는 2만여 명, 선수는 14만여 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이 뭘 하는지 대한체육회가 다 알기 힘들다. 시도체육회, 팀을 운영하는 지역자치단체와 종목별 협회·연맹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허점이 많다. 대한체육회에서 현재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한체육회의 교육 역할은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는 전남 장흥에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사마광은 자신이 쓴 자치통감에서 교육으로 사람의 사고체계와 조직문화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직무, 인성, 소양교육 기회를 단계별, 수준별로 오랜 기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를 열기 위해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정책 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군인 체육은 국방부, 여성 체육은 여성가족부 등 체육 업무가 10개 이상 부처로 흩어져 있다. 체육부나 총리실 산하 국가체육위원회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기능을 한데 모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기도 한 이 회장은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한국 스포츠 미래 100년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유치가 확정된 2024년 강원 겨울 유스올림픽을 통해 평양과 마식령에서도 경기를 치르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로 가려 한다.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스포츠가 평화와 통일의 변화를 이끌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legant@donga.com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임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